

“마음 풍경화...감춰뒀던 감정 꺼내 보세요”

‘꿈을 꾸는 화가’전 여는 이영철 작가

헤민 스님 베스트셀러 ‘멈추면...’ 삽화가
광주 첫 개인전...31일까지 문예회관갤러리

예쁘고 동화같은 보름달·연인·들꽃·나무
“내 그림은 어른 아이들을 위한 행복 동화”



그림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면 ‘작가’에 대해 상상해보곤 한다. 지난 주말 만난 이영철 작가(59·사진)는 작품을 보며 떠올렸던 이미지와 꼭 같았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더 그렇게 느껴졌다.

헤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삽화를 그린 대규 출신 이 작가는 오는 31일까지 광주문예회관 갤러리에서 정일모 작가와 ‘꿈을 꾸는 화가’전을 진행중이다. 그는 해마다 5·18이 되면 광주를 찾고 광주비엔날레도 꼭 관람하는데, 개인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름달, 첫사랑 연인, 들꽃, 나무가 꼭 등장하는 그의 그림은 예쁘고 동화같다. 그의 작품은 원색의 색감과 쉽고 단순한 형태, 순수하고 동화적인 내용이 특징이다. 특히 그림책 속 ‘월리’를 찾는 것처럼 작품에 숨겨진 ‘깨알처럼 작은’ 연인들을 발견해내는 즐거움이 있다.

“사람을 아주 작게 그리는 건 자연 속에서 우리 인간은 정말 작은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예요. 하지만 사랑을 하게되면 또 우주를 뒤집을만한 큰 존재가 되는 게 또 사람입니다. 작품 속 연인들은 연극 속 인물들처럼 움직이죠. 보름달은 마음의 원형이에요. 어떤 때는반달, 초승달이 되기도 하지만 다시 보름달로 돌아옵니다. 누군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겸손하자는 마음도 담긴 상징입니다.”

이 작가는 중 3때 전깃불이 들어왔던 고향은 ‘모깃불에 별이 그을릴까 고민할 만큼 가깝게 별이 내려앉은 곳’이었고 그 때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작품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꽃이 수북히 쌓여 있는 ‘꽃밭’은 40일간 가출했다 돌아온 자신에게 어머니가 이불 속에 묻어둔 밥공기를 꺼내주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린 작품이다. 항상 등장하는 그림 속 연인은 그의 마음의 표현이다. 항상 자신을 기다리던 지금의 아내와 늘 뒤통에 약속장소로 갔던 자신이 쓰는 반성문으로 “억수로 사랑한테이”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초록 봄 사랑 달’



‘꽃밭-분홍빛 사랑 노래’

안동대와 계명대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그에게 ‘예쁜 그림’이라는 평가는 한 때 채찍처럼 아팠다. 치욕적이라는 생각도 했다.

“젊었을 땐 존재의 본질을 치열하게 탐구하며 무겁고 어두운 작품들을 그리곤 했죠. 하지만 늘 불편했어요. 난 원래 개구지고 여리고 약한 사람인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만드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림을 바꾸고 나서 돈 벌려고 그리는 그림이다. 별별 말을 다 들었죠.”

인식의 변화를 가져다 준 건 가족이었다. 아버지와 형이 잇따라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마저 중풍으로 입원을 했다. 5인실 어머니 침대는 벽쪽에 있었다. 어느 날, 빈 물감 박스에 그림을 그려 어머니가 바라보는 벽에 붙이기 시작했다. 불교신자인 어머니를 위해 부처도 그리고 예쁜 꽃도 그렸다. 이웃 환자와 가족들이 “화가세요?” 물어왔다. 환자와 의료진에게도 그려주기 시작했고 퇴원 때까지 45일간 250여 작품을 제작했다.

“이 때 생활과 그림이 함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디서든 재료만 있으면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 싶었죠. 삽화면 어떻고 만화면 어떤가. 누군가가 위로받고 조금이라도 행복해지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작업을 하며 제가 가장 행복했어요. 감사

하게도.”

어머니 49재때 개망초, 구절초 등 ‘들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병상에서 그렸던 화풍의 그림들을 크게 그리기 시작했다. 수만송이 꽃이 화폭을 메웠다. 꽃 한송이 당 10여장의 꽃잎을 수십 번 덧칠하며 만들어냈다. 어머니 죽음에 허망해 별을 주려 시작한 거지만 마지막 슬픔도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 작가와 헤민 스님과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은 발간 후 이미 50만부 이상 판매된 상태에서 화가와 문제가 발생했다. 다시 작가를 찾게 됐고 헤민 스님이 인터넷에서 이 작가를 발견, 연인이 만들어졌다. 책은 300만부까지 팔려나갔고, 현재는 세계 26개국에서 판매중이다. 보통 각 국가에서 별도로 삽화를 넣지만 현지 출판사 모두가 작가의 삽화를 쓰고 있다. 헤민스님은 서울에서 개인전 개최를 우선하고, 갤러리를 찾은 이들에게 노래도 들려주며 이 작가를 격려했다.

“이전까지는 내 자신에 급급한 화가였죠. 마음이 좁았습니다. 친구들 잘되면 속상하고 자책도 했죠. 스님을 보며 남을 돕자 마음 먹으면 진심을 다해야 한다고 깨달았어요. 그림 재능 기부도 하고 벽화 봉사도 해요. 웬만하면 저작권도 무료로 사용하게 해요. 홈페이지에도 작품을 고화질로 올려둡니다.”

김광석 거리 벽화 작업도 진행한 이 작가는 또 작업실에 찾아온 고양이 ‘안심아’를 시작으로 지금은 고양이 50마리를 돌보고 있다.

“우리 마을 속에는 다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 아이를 위한 행복 동화’라 이름 붙였죠. 우리 마음 속에 넣어둔 감정들을 꺼내보았어요.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어도 꺼내 볼 수는 있잖아요.” 이 작가는 자신의 그림을 ‘마음 풍경화’라고 말했다. 관람 공연 있는 날 오후 1시~밤9시, 공연 없는 날 오전 10시~오후 6시. 문의 062-613-83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서양화가 김미숙 작가 초대전 22일까지 장성문예회관

서양화가 김미숙 작가의 작품은 따뜻하고 서정적이다. 특히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인 다양한 모습의 인물상을 접한 관람객들은 그녀의 작품에 쉽게 동화되고 한다. 화려한 꽃과 함께 화폭에 자주 등장하는 여인상은 작가의 자화상으로 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그녀의 바람이 담겼다.

김미숙 작가 초대전이 22일까지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올해 새롭게 그리기 시작한 한복입은 여인상 연작 ‘꿈을 찾아서’가 눈에 띈다. ‘한복’이라는 고전적인 주제를 택한 작가는 그림 속 여인을 통해 자신을 포함해 많은 이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꿈’에 대해 이야기한다. 다양한 느낌의 한복을 입은 작품 속 주인공들은 꽃, 새, 나무 등 다양한 배경과 향수 등 현대적 소품들과 어우러져 다채로운 모습을 연출한다.

그녀는 대학에서 응용미술을 전공하고 장성 군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부지런히 그림을 그리고 있다.

전남도전과 대한민국현대미술대전 대상, 대한민국미술대전 평론가상과 특성 등을 수상했으며



‘꿈을 찾아서’

대한민국미술대전, 한국현대미술대전 초대작가 등으로 활동중이다. 문의 061-390-755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피아노로 듣는 ‘임을 위한 행진곡’

김정아 독주회...14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다양한 음악회로 청중들과의 소통에 힘쓰고 있는 김정아(광주대학교 교수·사진) 피아노 독주회가 오는 14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피아니스트 김정아는 이번 독주회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발전시킨 창작 피아노곡 김진철의 ‘기억’을 연주한다.

5·18 민주화쟁 기념 오페라 ‘무등동동’을 작곡하기도 한 작곡가 김진철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주제로 교향곡 ‘무등산’을 발표했고 이번에는 피아노곡으로 재작업해서 선보인다. 피아노 소리로 표현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주는 또 다른 감동을 기대해본다.

그 밖에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D장조 KV 576’,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소나타 2번’, 작곡



가 리케티의 ‘무지카 리체르카타’ 등을 연주한다.

피아니스트 김정아는 서울예고, 이화여대 음대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빈 시립음악원에서 디플롬,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에서 콘체르트예사멘 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한국피아노학회 호남지부 회장,

한국악코르조학회 이사, 광주피아노아카데미 부회장, 무지크바움 현대양상물 단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광주대학교 문화예술대학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석 2만원 (학생 50% 할인). 문의 010-6331-6834.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국악방송 15일 불회사서 ‘도란도란풍류방’ 공개방송

광주국악방송 ‘주홍의 무릎길산책’에서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보다 젊게 가꾸는 방법을 찾아보는 공개방송 ‘도란도란풍류방’을 마련한다.

‘주홍의 무릎길산책’(매일 오후 6시~7시30분 방송)은 매일 저녁 우리의 삶을 담은 이야기와 편안한 음악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오는 15일 오후 3시에는 유서 깊은 사찰 나주 불회사에서 요가지도자 원정혜 박사(동국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몸과 마음이 보다 젊게, 지혜롭게 나이 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또 장은선(KBS국악관현악단 단원)의 고즈넉한 거문

고 독주 ‘소엽산방’을 비롯해서 패국악그룹 ‘樂바리’의 신명나는 시나위, 그리고 국립남도국악원 단원인 박신영, 조현정, 지선화의 판소리와 남도잡가 보렴을 감상한다.

이 프로그램은 22일 오후 6시 광주 국악방송 ‘주홍의 무릎길산책’을 통해 방송할 예정이다. 광주국악방송은 광주 FM99.3MHz를 비롯해 전주 FM 95.3MHz, 진도·목포94.7MHz, 남원 95.9MHz에서 들을 수 있으며 PC와 모바일에서도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당터쿵 플레이어’를 내려 받아 청취할 수 있다. 문의 062-602-9310.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2017-2018
신양파크호텔

겨울이야기

객실패키지 | 2017.12.1 ~ 2018. 2. 28

- 스탠다드룸 ₩ 80,000
- 디럭스룸 ₩ 90,000

- 조식별도 1인 15,000 / 세금포함 -

연회장 할인축제 | 2018.1.1 ~ 3. 31

웨딩, 각종 가족모임 및 기업체 세미나 등 출장파티를 포함한 당 호텔 연회 행사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혜택 : 식료 10%, 음주류 30% 할인

신양파크호텔 예약 및 문의 객실 ☎ 062) 228-8000 연회 ☎ 062) 228-4711~2